

**【 2015.06.22(월) 강원일보 】**

# 원주~강릉 철도 공정대로 착착

강릉시 올해 말까지 노반제거·지상부 실시설계

[강릉]강릉시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철도 건설사업이 구간별 계획 공정률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 구간은 대관령~강릉정거장까지 총 23.8km에 이르며 4개 구간으로 나뉘어 동시에 시공 중이다.

특히 도심지 지하화 구간인 경우 NATM 터널구간에 대한 굴착공사 및 U-TYPE 개거구간의 구조물공사, 개착BOX 구간의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릉정거장 구간도 터파기 공사 중에 있다. 또 철도 지하화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유휴부지 정비공사

의 경우 풍물시장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으며 기존 철도 노반제거 공사가 곧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노반제거 공사의 경우 교통 혼잡과 통행불편 최소화를 위해 4개 구간으로 나뉘어 강릉대로~토성로 및 경강로~금성로 구간을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 2개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 2015.06.22(월) 강원도민일보 】**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취임

26일 춘천베어스호텔 이·취임식

제20·21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이·취임식이 26일 오전 11시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오인철(사진) 회장이 취임하고 정동기 회장이 이임한다. 오 회장은 3년간 건설협회 도회장직을 수행한다.



홍천 출신인 오 회장은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도육상경기연맹 부회장, 강원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건설협회 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은복 rio@kado.net

• 새익자 •

### 최원식 도 건설교통국장

최원식(58) 신임 도 건설교통국장은 “동서(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등 도내 주요 SOC사업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국장은 정선 출신으로 정선종교, 방송통신대, 강원



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6년 정선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도 재난방재과장·도로철도교통과장·지역도시과장, 동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속도

# 심사 기준안 이르면 이달 말 '윤곽'

24일 건설업계 실무자 간담회... 항목·배점 의견 청취 첫 시범사업, 8월 '농어촌공사 화옹지구 5공구' 유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올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중심제) 시범사업 발주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건설업계의 이목까지 집중시키고 있는 조달청의 중심제 도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9일 조달청은 내년 중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부심사기준(안) 마련 및 특례승인을 포함한 시범사업 발주제비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우선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중심제 심사 기준(안)의 경우에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 건설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각 군 및 등급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며, 20명 안팎의 토목 및 건축분야 견적팀(부)장급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와 관련, 공사규모에 따른 입찰 참여부 및 등급별 시공실적 적용방식과 배점, 해당 지역건설사의 참여비율 및 가점 등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심사기준안 적용 및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각 항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범사업에 적용될 최종 기준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렇게 작성된 기준안은 기획재정부 특례승인을 거쳐 올해 시범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개정될 계약예규에 반영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물론 지자체 등 수요기관의 이목도 집중시키고 있는 조달청의 중심제 시범사업은 이르면 오는 8월께 첫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계획된 시범사업은 토목공사인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5공구와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건축공사 1건 등 2건으로 우선 농어촌공사의 화옹지구 5공구부터 발주될 전망이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기재부와 이 공사에 대한 예산협의를 갖고 있는 중으로, 심사 기준 마련 및 특례승인, 계약요청과 기술검토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일러야 8월, 늦으면 9월 중 발주가 예상된다.

나머지 1건의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9월이나 10월께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권기자 skbond@

## 주간입찰동향

### 조달청, 97건·1812억 시설공사 집행

중대형 입찰 대폭 늘어 LH, 건설공사 4건 예정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6.22~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등 모두 97건, 1812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주 대비 집행 건수는 26건이 늘었고, 추정가격 기준 집행 규모 또한 430억원가량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 대상 등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은 단 1건도 예정된 게 없다. 100억~300억원 미만 중대형 입찰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업계의 관심 물량을 보면, 23일에는 157억원 규모의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와 108억원 규모의 진남관 보수정비사업 개찰이 예정돼 있다.

이어 25일에는 204억원 규모의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입찰이 집행되며 26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사업인 272억원 규모의 보광스노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이 집행된다.

여기에 117억원 규모의 하남시 지역현안 사업부지 2지구 접근도로 개설공사

입찰도 이날 집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들 공사를 포함, 이번주 집행예정 입찰은 단 2건을 제외한 95건(약 98%)이 지역제한 또는 지역외무 공동도급 대상으로, 전체의 약 61%인 1103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381억원과 315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가운데 충남도(215억원)와 충북도(194억원), 서울시(182억원), 대구시(151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는 이주 4765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입찰 4건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 주(109억원, 1건)에 비해 입찰 건수는 3건, 금액은 465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주에서 연기된 최저가낙찰제 4건을 집행함에 따라 입찰금액이 늘었다.

오는 26일에는 공공입대리츠 방식의 김해 진영2 B-5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912억원)와 수원 호매실 B-3BL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1844억원), 시흥목감 A-4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524억원), 인천 서창2 2BL 아파트 건설공사 10공구(1485억원)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방송권기자·채희찬기자chc@